‘ Why ’시리즈 초등학습만화 1,000만부 판매 돌파

‘ 발명 · 발견 ’ 편은 왕연중 감수 · 김민재 글과 그림으로 구성, 저작권 수출도

우리회전이사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이 자료제공과 감수를 하고, 우리회회지 ‘ 발명특허 ’에 발명만화를 연재하는 만화가 김민재 화백이 글과 그림를 그린‘ 발명 · 발견 ’편을 포함하여 모두 30권으로 출판사 예림당이 발행한 초등과학학습만화 ‘ Why ’시리즈가 판매부수 1,000만부를 돌파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1,000만부 판매돌파 기념행사는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국회, 출판계, 과학교육계, 언론계인사 5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그런데, 이‘ Why ’시리즈는 중국, 프랑스, 대만 등 해외에도 이미 저작권이 수출돼 지난 6월 8일 현재 약 75만부가 팔려, 드디어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발명 및 과학교육 이론이 해외에서 인정받아 교육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에 주인공으로 초대된 왕연중 소장과 김민재 화백에 따르면, 이‘ Why ’시리즈의 출판사 예림당 나춘호 회장은 이날 “ 책 1,000만 권의 힘이 1,000개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 며 이 ‘ Why ’시리즈 1,000질(2억 7,000만원 어치)을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장애아동, 재외동포 어린이들에게 기증하여, 일부 소외된 어린이들의 발명 및 과학학습의 계기도 마련했다는 것.

‘ Why ’시리즈는 발명과 기초과학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만화로 풀어내 현재 30권까지 출간된 초등과학학습만화의 베스트셀러로서앞으로다양한주제로계속발간될계획이다.

한편, 이번 ‘ Why ’시리즈를감수한왕연중소장은 아이 앤 북 출판사의‘ 신기한 속으로 ’시리즈의 ‘ 신기한 발명 · 발견 속으로 ’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이야기 ’시리즈의‘ 재미있는 발명 · 발견이야기 ’의 감수도 하여, 이 분야 감수를 독점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왕연중 소장은 이외에도 도서출판 경원각의 발명도서인‘ 발명 아이디어 교실 ’도 감수했다.

또, 김민재 화백은 동아일보사가 발간하는‘ 월간 어린이 과학동아 ’에 5년째‘ 구리구리 발명왕 ’이라는 제목으로장편발명만화를연재하여역시이분야최장수연재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김민재 화백은 이외에도 특허청이 발간한 발명만화교재‘ 만화로 본 발명특허 이야기 ’등 수많은 발명특허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내고 있다.